

1989 10

가정예배 안내서

충현의 만나

The Family Altar



(교회학교 소년부)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52-8200

로마서는 바울서신 가운데 진주와 같은 가장 소중한 책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로마서는 유명한 책으로 알려진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교리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어렵기로 유명한 책이다.

이 로마서가 어렵다는 것은 단순히 단어나 문장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교리의 심오함에 있다.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신비로운 진리들, 논리를 초월한 말씀들이 가득히 담겨져 있다.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며 바울의 13서신 가운데 로마서, 고린도후서, 갈릴디아서를 가르쳐 사도의 복음서(Apostle's Gospel)라 한다.

기록시기와 장소는 바울이 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칠 무렵의 봄철에 약 3개월 동안 고린도나 인근지방에 머물면서 기록했다. 바울의 회심후 25년의 일이다. 이때는 바울이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대단히 성숙한 자리에 있었으므로 이 책의 내용이 어느책보다 심오한 것이다.

로마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체험을 한 로마인이 돌아가서 세웠을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10월의 기도제목

1. 이종윤 위임목사님의 말씀사역과 건강을 위하여
2. 김창인 원로목사님의 해외 여행중 건강을 위하여
3. 부교역자들의 사역과 건강을 위하여
4. 장로님들의 개인경건과 사업을 위하여
5. 전도대회의 큰 성과를 위하여
6. 제 3 학기 목회자 세미나를 위하여
7. 제자훈련의 결실과 복지마을 수양관 건립을 위하여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2 : 29)

하나님 모독 바울은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범하므로 하나님을 이방인 중에서 욕되게 한다고 공격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욕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실수하거나 넘어지면 이방사람이 우리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례 무할례 바울은 계속해서 할례를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공격합니다. '할례'라는 말은 난지 8일 만에 남자 아기들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유대인의 의식입니다. 이것은 날때부터 애기에게도 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불경을 떠난다는 뜻이 있고 또 중생해야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유대인이라 떠들어도 할례받지 않은 유대인은 유대인이라고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범하면 할례가 아무 유익이 없다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할례받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의 회원권만 가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상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할례를 마음에 하는 사람은 그 칭찬이 사람에게 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신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구합니다. 마음에 할례를 받는다는 말씀은 심령이 거듭남을 말합니다. 육신적으로 물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생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과 정말 상관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 하나님의 교회에 등록이 된것, 세례교인이 된 것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마음에 할례, 심령의 새로워짐이 있어야 합니다. 세례교인이라 하면서 성경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것도 무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중생의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됩시다.

기도 마음의 새로움을 늘 인식하고 외적 조건만을 자랑하는 우리가 바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고 새사람되어 생각에나 말에나 행동에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2 (월) 나은 것이 무엇이나

찬송 347 성경, 롬 3 : 1 - 8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3 : 1)

유대인의 나움 지구상에 많은 종류의 사람이 살지만 유대인들 에게만 구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특별히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외적으로 타민족보다 우수한 민족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질적으로도 우수해야 되고 더욱 겸손하기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겸손 대신에 교만하였습니다. 사람이 분수를 모를 때 이런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의 나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범사에 많았습니다(3 : 2). 첫째로 나은 것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외부적으로 받은 은혜가 참으로 많습니 다. 유대인들은 특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수한 것만은 틀림 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못하니 다른 민족보다 실제로 나은 것이 무엇이겠느냐고 반격을 받기도 합니다. 유대인이 약속을 받고 할례를 받았다고 큰소리 치지만 나은 것이 무엇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나. 세례 받은 사람은 안 받은 사람보다 무엇이 나으냐. 남녀 전도회 임원은 회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불신앙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3 : 4). 그러므로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다’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모두가 예외없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불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였습니다(3 : 5). 그렇다고 유대인이 공로자는 아닙니다. 우리의 불의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고 우리가 계속 불의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므로 불의를 순간이라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루 속히 불의를 벗어버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가지 좋은 것들을 소유하고 계 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 합니다. 믿음, 은사, 건강 다 주셨는데도 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너의 나움은 무엇이나’는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룬 것이니 공로자라고 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불의한 가운데 있어도 좋다는 이야기도 넌센스 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오니 유대인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3 : 9)

너는 어떠냐 ‘우리는 어떠하뇨’는 유대인의 죄를 책망하는 너는 어떠냐는 뜻입니다. “너도 마찬가지로 죄인이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순간부터 신앙에 들어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의 차이는 죄를 시인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의 죄는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창조주로서, 구속주로서 섬기지 못하고 영광돌리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사람은 죄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다 바울은 자기가 말하지 않고 전도서 7 장 20 절과 시 14 편 말씀을 인용하여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없을 뿐 아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앞에 나아오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전자는 사상적인 면에서 무신론자요 후자는 실제적인 면에서 무신론자입니다. 이론적, 사상적 무신론자는 공산주의자와 같이 하나님이 없다고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실제적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교회에도 오고 기도도 하는데 실제 생활은 하나님없는 생활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다 탈선해서 방황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방법이 있고 길이 있는데 길을 찾지 못하니 방황합니다. 현대는 방황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다 치우치게 됩니다. 치우치는 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해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선을 바쳐야 할 인생이 오히려 하나님께 무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 모두가 죄인이니 타인을 정죄하지 맙시다. 의롭다고 주장하는 나도 그들보다 나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론적 무신론자는 아닐지라도 실제적 무신론자가 아닌지 곰곰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은 마귀도 믿습니다. 믿음은 사실 인식만이 아니라 그에게 완전히 귀의하는 것입니다. 참길을 찾았으면 더 이상 방황하지 맙시다.

기도 길이 놓여 있음에도 죄로 어두워 방황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활 가운데서 믿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옵소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3 : 12)

능력 상실 하나님앞에 무익하게 된 자는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합니다. 여기서의 선은 인간이 행하는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말합니다. 불쌍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동전 몇뎌 주는 것도 선입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한밤을 새워가며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한밤을 새워가며 사춘기 소년처럼 눈물이 나 흘리는 그런 허무한 인생을 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정면으로 대면을 해야 합니다.

악독과 저주 무덤을 파놓으면 그 무덤은 시체가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어떻게든지 더 잡아가지고 집어삼키려는 것이 열린무덤의 모습입니다. 그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의 목구멍이 열린무덤과 같다는 것은 악독과 저주와 죄악을 삼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목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속임을 혀로 베뚫다 했습니다. 속이는 말, 간사한 말이 다 목구멍 속에 있습니다. 조금 우직해 보여도 정직한 말을 하는 것이 무덤을 면하는 길입니다.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이 무덤을 면하는 길입니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인간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고 하니 독사의 독과 같아서 한번 말이 그 입에서 떠나가면 상대방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줍니다. 독사의 독은 옆에 있는 사람을 상하나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독은 천리 만리 밖에 있는 사람까지 상하게 합니다.

****** 우물쭈물 예수 믿고 주일 지키고 오후에는 성경 배우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왕 신앙생활을 할 바에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입술을 조심하여 남의 말 함부로 하지말고 남의 허물 지나치게 금지말고 덮어줄줄도 알고 사랑해줄줄도 알아야 합니다. 악을 발라주고 싸매줘야할 상처를 자꾸 긁어주는 것이 독사의 짓입니다. 기도한 무릎은 천국에 다 가 있고 악담하고 저주한 입은 다 지옥에 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 열렁뚱땅 신앙생활 하지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의 허물과 악점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어서 다른 사람의 악점을 가릴 줄도 알게 하옵소서.

「그 발은 피흘리는 데 빠른지라」(3 : 14)

독약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저주’는 다른 사람에게 망하라고 하는 악담을 말하고 ‘악독’은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독한 말을 말합니다. 독약과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말을 많이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가 나옵니다. 말은 사람의 인격입니다. 인간의 악은 입에서 시작해서 또한 행위로 연출됩니다. 입으로 저주를 하고 그다음은 발이 움직입니다. 피흘리는 발은 살인입니다. 악한 일을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잔인한 행동, 증오하는 행동, 혐의의 행동 이것이 전부 피흘리는 것의 내용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피흘리게 하는 것은 잔인한 행동입니다.

영과 육의 대결 처음 예수를 믿으면 두 사람이 내 안에서 싸웁니다. 하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나이고 하나는 아직도 육의 인도를 받는 나입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육이 높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에 집니다. 세례를 받으면 육의 힘이 줄고 영의 힘이 조금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도 읽으면 성령의 힘이 점점 늘어나지만 그래도 육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혐의 날 때 육지거리도 하고 주먹도 올라가고 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러다가 신앙생활에 점점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인격을 주장하게 될 때에 밸런스가 맞아 이제는 육과 영이 맞수가 되어 때로는 성령이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육이 이길 때도 있습니다. 시간이 자꾸 지나면서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연조가 중요합니다. 어제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해도 위험부담이 있으므로 성경은 오래 믿은 사람에게 장로 안수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이 60쯤 되고 육이 40쯤 되면 이때부터 영이 육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육적인 생각을 영이 누르게 되면 이때부터 자기 콘트롤을 할 수 있게 되고 90, 100쯤 되면 성자입니다.

******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점점 나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옥박지르지 맙시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심판을 단행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기도 입을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게 하시고 날마다 영의 사람이 승리하게 하소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3 : 20)

죄의 각성 바울은 두 종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율법 아래 있는 자요라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정죄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 이미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힌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기로 이미 결정을 본 사람으로 구원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범법한 사실을 모르듯이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인 사실을 모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주신 것은 구원을 위함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함입니다.

도피성 신, 불신간에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점과 죄인이라는 점은 공통입니다. 다만 저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도덕적인 의를 주장하고 무죄를 주장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도피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살던 죄인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도피해 왔다고 하는 것이 구약성경에 나타난 '도피성'입니다. 살인자라도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법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도망치면 율법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인으로 취급됩니다. '의롭다 하심'이란 법정적 용어로 실체는 의롭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 '이제는'이라는 말이 강조형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질은 어둠 속에 아침해가 솟아 오르면서 비추는 이제, 가뭄이 한달 두달 석달 계속되다가 막 소나기가 쏟아지는 바로 그런 순간을 말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그 순간입니다. 환희와 감사가 폭발되는 그 순간입니다. 율법에 묶여 있고 곤고와 사망의 그늘 아래 놓여있던 그 때를 기억하지 못하면 참 이제로서 이해가 안될 것입니다.

※ ※ 하나님의 한 의, 이것은 객관적으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소유해야만 의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인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죄인이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으니 의인답게 살게 하옵소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3 : 21)

나타난 의 하나님은 친히 세우신 법을 깨뜨릴 수 없는 진실하신 분입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자는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때문에 이 죽음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대신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시므로 그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습니 다. 구약 성경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죽으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요 나타나바 된 것입니다. ‘나타나다’는 현재 완료형으로 한번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누구든지 볼수있게 지금도 계속 나타나시는 것을 말합니다. ‘증거를 받았다’고 하는 것도 현재 분사형으로 그들의 증거가 구약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도 믿는 것입니다. 구약을 부인해도 이단이요 신약을 부인해도 이단입니다.

믿음의 방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믿음은 구원을 받는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얻는다는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믿음의 공로가 되어 버립니다. ‘말미암아’는 방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받는 한 방편일 뿐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의(義)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지 내게 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창조해 낼 수 없습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으로 해석하기 힘든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한가지 기억할 것은 예정교리는 감사의 표시로 해석해야지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사로 잡혔으니 내 의지는 완전히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는 빛바랜 걸레조각에 불과합니다. 의를 주장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 봅시다. 그리고 은혜받은 자로 삼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흘리셨으니 나 또한 이웃을 위하여 희생합시다.

기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무감각한 자가 되지 알게 하시고 주님처럼 이웃에게 사랑을 끼치는 자 되게 하옵소서.

8 (주일) 사랑 때문에

찬송 411 성경, 롬 3 : 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3 : 23)

모두가 죄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한 것도 죄입니다. 이 범죄의 근원은 과거에 있습니다. '죄를 범하였다'는 동사는 과거동사입니다. 아담은 최초의 인간 대표로 나타나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은 다 죄인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죄'란 영어로 missing으로 표적을 세워 놓고 활을 쏘는데 옆으로 빗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빗겨 나간 것이 죄입니다. 또 죄는 Shorten, 미치지 못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하거나 빗나간 것이 죄입니다.

능동적 구원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부득이 함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능동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요청으로 구원하신 것도 아니라 자원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행위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소망없는 사람이 드리는 행위나 또는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 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성경의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제로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축제가 됩니다. 과거의 죄에서 나온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격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피흘려 죽으셨다는 말 씀입니다. 강도를 쫓는 경찰이 발을 쏘다가 그만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끌고 재판장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은 끝납니다. 죽은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는 거기에서 끝났습니다.

**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이므로 우리는 죄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거나 모자람이 없도록 늘 힘써야 합니다.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았으니 더 이상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삶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바 되었느니라」(4 : 3) 성령의 역사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진 사람이 필연적으로 해야 할 것 중의 하나는 개인적 공로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오직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신득의 교리의 성경적 증거는 4 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칭의는 율법과 무관한 칭의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으로는, 즉 사람의 힘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바 되었습니다. 이 믿는다는 말은 지적인 승인만이 아니고 인격 전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적으로 소화하기는 대단히 어려우나,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소화할 수 없으나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대리적 인정 신앙은 업적과는 다릅니다. 신앙은 행위적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바 되었느니라’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게 봐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표현으로 대리적 인정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자체가 하나님의 의이지 내 의가 아닙니다. 창세기 22 : 18절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여기서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복의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복, 구원의 축복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축복은 구원축복입니다. 구약 성경의 물질의 축복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축복이요 메시아 구원의 풍성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축복은 아닙니다. 재물이 많아져 구원을 방해한다면 그 재물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요 명예가 높아졌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면 그 명예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입니다.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면 그 병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축복은 사마리아인의 축복이요 기복신앙을 주장하는 불교나 다른 종교의 축복 개념입니다. 오직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기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되 의롭게 봐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실제로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4 : 5)

타력 구원 4-5절에는 두가지 칭의의 방법에 관한 비교가 나옵니다. 하나는 일하는 자요 또 하나는 일 아니하는 자입니다. 일하는 자는 자력 구원을 말합니다. 일 아니하는 자는 타력 구원을 말합니다. 오늘 신학자들 간에 벌어지는 논쟁은 인간이 자율적으로 구원에 이르느냐 아니면 타율적으로 구원에 이르느냐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근본 입장은 타력구원 입니다. '일을 아니 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여기 '믿는다' 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온 몸과 인격 전부와 자기 자체를 하나님과 그 말씀에 집어 던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수영을 못하는 분들은 물위에 자기를 띄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 속에 완전히 자기를 맡기고 있으면 붕붕 뜹니다. 이것이 자율과 타율을 설명하는 좋은 예가 됩니다. 물 속에 자기를 맡기고 뜨면 발을 구르고 손을 움직이면 앞으로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행복자 7 절에는 세가지 행복자가 나옵니다. 첫째 불법을 사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불법은 공공연하게 범하는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터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배신하고 공격하는 죄를 말합니다. 불법을 사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치워버렸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흘리심으로 불법이 치워진 것입니다. 둘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거나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죄는 가리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안보실려고 가리워 주신 것입니다. 셋째,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입니다. 이 세번째의 죄는 인생의 정도를 벗어난 윤리적인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윤리적인 죄까지도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를 치워 버리고 가리워 버리고 여기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 *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행복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남편 돈 못벌어 온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학 못나와 아는 것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천국에 대학 증명서 가지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기도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외적인 것에 있지 않게 하시고 주의 구속을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4 : 13)

믿음의 의 본문에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세상 기업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특별히 기업을 성취하신 수단이 13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에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언약’은 은혜의 계약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은혜 계약 속에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 계획없이 인간들을 죄에 떨어뜨리고 또 갑자기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획 속에서 움직이시되 특별히 하나님은 인간과 계약을 체결하십니다. 철저히 계약을 하시는데 그것은 일방적 계약입니다. 하나님 혼자 하시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여서 계약을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며 선택된 사랑입니다. 특별히 택해서 구원해서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계약의 성취 은혜계약은 하나님이 친히 설정하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계약이행을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계약의 제일번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로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셋째로는 계약의 유일성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는 계약입니다. 넷째로는 이 계약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은 모세의 율법과는 무관합니다. 그는 율법이 있기 400여년 전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의롭다고 인정이 된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기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까지 약속을 하셨는데 여기서 후손은 육체적인 후손이 아니라 영적인 후손입니다. 즉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사라고 할 것 같으면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속은 폐하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은 내세의 것이므로,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어려움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참고 구원을 이룹시다.**

기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본 듯이 믿고 행하도록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4 : 22)

신앙의 예증 17절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예증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대상은 권능과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그 믿음을 갖는 후손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으니 우리도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18-21절에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성격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인간적 계산이나 합리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믿었습니다.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도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확신하는 신앙이며 동시에 성장하는 신앙이며 믿음이 갈수록 자랐습니다.

이신득의 아브라함의 신앙의 댓가는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신득의’는 오늘의 신자들의 예표가 됩니다. ‘믿으니 의로 여기신’(22절) 이것은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공식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공식입니다. 첫째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에게 향해져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개도 예수안에서, 중생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성화도, 양자되는 것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안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죽지 않았으면 부활이 없고 부활 없는 죽음은 필요가 없습니다. 넷째로 칭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서 받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가 죽으실 뿐 아니라 그가 중보자가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되는 것입니다.

******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지 자라야 합니다. 산 사람은 자라는 법입니다. 믿음이 정지상태에 있다는 것은 곧 죽은 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까지 자라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었습니다. 믿음이 견고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기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정지되지 않도록 은혜를 입히시고 아브라함처럼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 하나니」(5 : 3)

종횡적 화해 칭의의 현재적 결과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과는 종적화해를 가져오고 사람들과는 횡적 화해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이웃과의 평화의 근본입니다.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남북 통일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 남북통일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안됐기 때문에 이웃과 악수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사랑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급선무는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이 화해를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을 가지나 세상을 향해서는 근심과 고통을 가집니다. 불신자는 세상에 대하여는 화평을 가지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근심과 고통을 가집니다. 육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1 절의 화평은 내적인 심령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신자의 화해를 통한 관계에서 오는 화평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갖는 사람이 심령에도 화평이 오는 것입니다.

환난중의 기쁨 칭의의 둘째 결과는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란 중에도 기뻐합니다. 새가 날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공기이듯이 성도의 신앙 생활에는 환란이 필수 조건입니다. 환란은 집의 지붕이 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비가 와야 약점을 보완하게 됩니다. 환난은 또한 인내를 가져옵니다. 수동적으로 참는 것만이 아니라 확고부동을 말합니다. 환난 중에서 오히려 소망이 자랍니다. 그러나 자기 실수로 인한 환난은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란이 소망의 출처입니다.

**** 이웃과 더불어 화평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칭의를 받은 증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광을 얻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오는 환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감사하므로 참고 견디 소망을 키워 나갑시다.

기도 환난 가운데도 기쁨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5 : 6)

네가지 사람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네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첫째로, 의인, 둘째로, 타협적인 인간, 셋째로 경건한 사람, 넷째로, 불경건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 의한 의인은 율법 준수자입니다. 내것은 내것이고 네것은 네 것이라는 철저하게 법대로 사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 해한 적이 없소”의 유대인이 말하는 의인입니다. 타협적인 인간형은 내것은 네것이고 네것은 내것이다의 인간입니다. “내가 너한테 요만큼 해 주었으니 너도 요만큼 해 주라”의 타입입니다. 전자 보다는 조금 융통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줄줄은 알지만 주는 이유가 있기 위해서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날 ‘사랑받는 아내교실’의 강의 내용이 주면 받는다 식의 사랑이론입니다. 성도의 모습은 네것은 네것이고 내것도 네것이다 입니다. 경건한 사람으로서 그 표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불경건한 자의 모습은 내것은 내것이요 네것도 내것이다 입니다.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경제관입니다. 이러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이 말이 중요합니다. ‘기약대로’라고 하는 말은 ‘때를 맞추어서’, ‘예정대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는 것이 슬로건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적은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을 본받으려고 하루 하루 한달 한달을 정할 힘을 기울여서 주님앞에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 주님을 본받되 결심하고 서서히 조금씩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말을 조심하자. 이번 주간에는 생활을 깨끗하게 해야 겠다. 결심뿐 아니라 실천해야 합니다. 자칭 의인, 타협적 인간, 불경건한 사람의 범주를 벗어나야 합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표준을 둘 뿐 아니라 이웃에게 관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날마다 하계 하시고 고아나 과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자칭 의인이나 타협적인 사람, 불경건한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5 : 12)

그리스도인의 자유 죄와 죽음과 율법의 문제는 로마서 전체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율법과 죄와 사망에 매여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세가지에서부터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정치적, 경제적, 무지로부터의 자유가 아닙니다. 죄에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로 모든 사람에게 있는 죄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는 자신에게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담의 죄는 두가지로 집약할 수 있는데 불순종과 교만입니다. 원죄가 이 두가지 때문에 인간에게 들어왔습니다. 교만이란 자기 위치를 상실했을 때 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교만죄가 온 것입니다. 소위 자유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원죄를 무지라고 합니다. 인간의 무지에서부터 원죄가 왔다고 하나 인간의 원죄는 무지가 아니고 불순종과 교만입니다. 이것이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다 나누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으므로 아담이 지은 원죄 때문에 우리는 자범죄가 없다고 해도 다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영적 사망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합니다. 물론 육적인 사망도 말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영육의 사망이니 영원한 사망을 말합니다. 지옥형벌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는 모순이나 사실입니다. 인류의 시조로 제일 처음 나타난 아담은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존재로 나타났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것이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모든 후손에게 전가되어 그 죄가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인생은 누구도 예외없이 다 범죄한 죄인들입니다. 이것을 보편적인 죄라고 합니다.

******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듯이 죄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죄는 확대되어 보입니다. 나 한사람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죄악을 끊읍시다. 죄로 무기력해진 자들을 사랑으로 권면하고 전책하므로 바로잡아 줍시다.

기도 나 자신보다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시고 죄에 민감하여 무기력해 지지 않게 하옵소서.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5 : 16)

원죄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의 사람들은 율법이 있기 전에 죄를 지은 것이니 그들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논리가 전개됩니다. 바울은 그렇다고 인정합니다(13절). 그렇다면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왜 그들에게 사망이 왔느냐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은 사망이 온 것은 개인의 죄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아담의 원죄로 그들에게도 사망이 온 것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돌아가신 분은 죄가 없지 않느냐는 논리에 대해서는 안믿은 죄를 적용할 수 없으나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담에게 물려받은 죄로 사망에 이를 수 밖에 없습니다. 롬 1 장에서는 자연계시가 있으므로 핑계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담의 타락은 죄와 죄의 경향성까지 가져 왔습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에게는 죽음이 왔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지식과 의와 거룩입니다(골 3 : 10. 엡 4 : 24). 원죄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상실하므로 거룩을 주장할 사람이 없고 의와 지식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타락은 죄와 비참을 인간에게 가져다 주었는데 곧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분노아래 떨어졌으니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가지 비참은 죽음에 이르렀고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비참에 떨어진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은혜의 계약을 세우셨는데 은혜계약 아래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것이 은사입니다(15절). 은사는 은혜롭게 행하여진 행위요 은혜는 은혜로운 행위의 원천입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은, 첫째 아담은 옛창조의 머리요 둘째 그리스도는 새창조의 머리입니다(고후 5 : 17. 엡 2 : 10). 옛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고 새사람은 그리스도의 후손입니다. 새피조물이 되지 못하고 옛생활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아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죄와 죽음으로 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욕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새로운 삶을 영위합시다.

기도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새생활에 이르도록 인도하옵소서.

「한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5 : 17)

일곱가지 차이 아담과 예수님의 두번째 차이점은 아담은 죄를 범했으나(창 2 : 17, 3 : 1. 롬 5 : 12, 21)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벧전 2 : 22). 세번째 차이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으나(15절)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아담의 시험은 불순종이었고 그리스도의 시험은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아담은 시험 받을 때 자기 영광이 목표였으나 그리스도는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 중에 가장 무서운 시험이 자기 영광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시험받으므로 잃어버렸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켰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가 순종하므로 많은 사람들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네번째 차이는 아담은 산영이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입니다(고전 15 : 45).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산영이라 하셨습니다. 영과 육이 분리된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영과 육이 같이 있을 때 인간입니다. 이것을 가려켜 산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논쟁입니다. 이분설, 삼분설로 학설이 갈라집니다. 창세기에서 육신을 창조하시고 영을 불어넣으신 것 이상이 없으므로 이분설이 맞습니다. 그리스도는 산영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번째 차이는 아담은 사망을 가져왔고 그리스도는 생명을 가져왔습니다(17절). 일곱번째 차이는 아담은 그의 죄적 성품을 그의 자손들에게 넘겨 주었으나(12절)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왔습니다(17절,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의를 가져 왔습니다.

******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아담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 생명없는 자. 불순종하는 자. 교만한 자. 이 모든 것이 아담의 성품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사망이 왕노릇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생명에 이르러야 합니다.

기도 우리의 영육을 불들어 주시사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소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5 : 20)

뜨거운 회개 율법이 세상에 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입니다. 이상한 말입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를 죄로 알지못하다가 율법이 오므로 죄를 알게 되었으니 죄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병이 더 많아졌다고 하지만 예전엔 병인줄 몰랐을 뿐입니다. 심장마비를 옛날사람들은 저주받아 죽었다 했고 살맞아 죽었다 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이 왔기 때문에 죄를 죄로 알게 되었고 죄를 알았기 때문에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아는 사람이 자기 죄가 더욱 크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다가 보면 지금까지의 생활이 얼마나 죄스러운가를 알게 되어 눈물과 콧물이 쏟아집니다. 이 경험을 적어도 몇달을 해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눈물고개를 못 넘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그렇게 깊이 아는게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뜨겁게 회개해야 그리스도의 깊은 차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고 자주 읽다가 보면 그 체험이 생깁니다. 그런 체험이 없으면 논리적인 설교는 할지 몰라도 감격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수박 겉핥기 식은 안됩니다. 그리스도의 진수를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눈물 콧물 흘리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며 기도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전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고 교회 봉사를 해도 분명히 하고 세상을 향해서도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형식만 갖추었다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말하는 내용도 다르고 용어도 다른 것을 교회문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는 잘 젖어 있는데 아직 교인이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 아담 안에 들어와야 참 교인이 됩니다.

****** 죄를 깊고 넓게 인식하고 통회하는 자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할 때 죄를 깊게 넓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훈련과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하는 훈련을 쌓읍시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6 : 1)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6 장의 주제입니다. 율법과 죄에서 자유함을 입었으니 이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해야 된다는 것이 6 장의 내용입니다. 율법과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성도들은 자유를 얻은 것으로 그대로 머물러 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가상적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생일날 먹으려고 일주일 동안 굶고 두었다면 밥맛이야 있겠지만 오히려 병들게 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것은 틀림 없으나 그렇다고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은 부정형 가운데도 아주 강한 부정형입니다. 은혜는 인간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는 것이므로 인간들이 이런 저런 방법을 가지고 억지로 은혜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은혜에 대하여는 완전히 수동적입니다. 내가 창조해 내거나 어떤 조건을 조성해 내거나 어떤 방법을 강구하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것으로 위로를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만 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너무 남발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철저하게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것,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로마서에서 은혜로 말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라는 말씀이 ‘죽다’ 는 단순 과거형으로 역사적으로 단번에 된 사건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우리가 한번에 죽어 버렸습니다. 골고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한 번에 죽은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죽은 것이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 있습니다.

※※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율법과 죄에서 자유함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율법의 수준에서 살고 있습니까 은혜의 차원으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죄와 상관되어 있습니까 끊어버립시다. 수단 방법을 강구하여 은혜를 받을 수는 없지만 은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주어 졌으니 감사합니다.

기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 되지 않게 하옵시고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하여 불의를 끊게 하옵소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6 : 3)

칭의된 자 성도는 중생의 체험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화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성화가 필요하기 전에 먼저 칭의가 필요합니다. 이 칭의는 십자가 보혈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므로 죄인과는 화합이 안됩니다. 이 일을 위해 십자가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칭의가 된 자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성도들이 죄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범죄는 마치 길가가 넘어지는 경우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두번 넘어지는 것이지 습관적인 것은 아닙니다. 넘어지고 또 일어날 줄 아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합하여’는 바울 선생의 유명한 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원교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하신 선택으로 시작되는 이 구원의 기초가 ‘그리스도 안에서’로 시작됩니다(엡 1 : 3, 4).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하늘로 올리움을 받게 됩니다(롬 6 : 2-11).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고 했으니 결국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추상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롭게 창조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중생에 이르는 것은 행위로 온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 행위가 굉장히 의로운 것 같고 깨끗한 것 같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사실 우리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살뿐만 아니라 이미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과 합하여 우리도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부활할 것이고 영광에 이를 것입니다. 부활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 오래 묵은 죄악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우리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죄악을 끊고 날마다 부활에 이르러야 합니다. 먼저 죽는 것이 없으면 사는 것도 없습니다.

기도 우리를 의롭지 않은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실제로 의로워 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6 : 5)

영적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몇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로 영적 연합입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라는 말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란 곧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영적으로 신비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을 만드시는 이가 성령님이라는 말입니다. 고전 6 : 17, 19은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주와 연합한 자를 한 영이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는 말이 가능합니다. 이 영적 관계는 삼위일체 교리에서 제일 정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관계는 그리스도의 신인성, 도성인신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입니다. 이것이 영적 관계이며 연합의 관계입니다. 그보다 더 신비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십니다. 이것이 연합이고 신비입니다. 이와같은 존재양식이 우리 인간인데 몸이면서 영입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영인 것 같고 영육이 분간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이 영적인 연합입니다. 단순히 감정의 연합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애정의 연합, 이해의 연합, 정신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같은 상태입니다.

신비적 연합 둘째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신비적 연합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비는 반(反)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 25-26을 보면 계시가 영원전부터 감추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이상 감추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 신비로운 비밀이라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나 하나님이 자기의 영으로 나타내시고 계시와 신앙으로 우리에게 알려 주셨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모든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6 : 5)

참된 소망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점점 성화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성도는 몇가지 허물을 벗어나야 됩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2-3절). 다음에는 영적 죽음으로부터 부활해야 합니다(4-5절). 죽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죽었다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로는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었고, 육적으로는 정욕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는 죽어버리고 소망을 천국에 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의에 대해서는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활을 같이 해야 된다고 했으니 소망이 부활에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천국에 있어야 됩니다.

정부가 올림픽 복권을 판매하는 일은 사행심리를 조작하는 일입니다. 복권 사가지고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보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5백원짜리 한장 사서 1억원을 얻겠다고 하니 얼마나 무서운 사행심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참 좋은 방법 같고 훌륭한 방법 같은데 참으로 이 사회를 쪼먹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복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 나라에 두어야 합니다. 천국시민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어야지 이 세상에 두면 안됩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부활한다. 죽음에서 부활한다 말은 하지만 정말 부활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새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새로운 생명에서 행하지 못하는 성도는 죽은 자입니다.

* * 무위도식하며 요행이나 바라는 심리는 없습니까. 복권타서 가난한 자 돕겠다는 생각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구체할 것이 있기 위하여 재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사행심리를 버리고 주어진 일에 착실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늘에 있다는 것들을 명심합시다.

기도 선한일을 계획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그 방법이 잘못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죄의 몸이 멸하여」 (6 : 6)

죄의 포로 흔히 '죄' 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 배저되는 것이나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는 행동태도, 마음의 자세등이라고 이해합니다만 사도바울은 죄를 인격화하고 있습니다. 죄를 어떤 행동이나 상태로 보지 않고 인격화하여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죄가 바울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고 하니 왕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이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가 왕이란 말은 죄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죄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왕과 같은 세력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죄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왕같은 죄가 들어오면 노예와 주인의 관계로 빠져 버리는데 죄는 주인노릇을 합니다. 죄가 왕이 될 때에 우리는 노예로 떨어집니다. 죄는 인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이 죄는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외적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 몸에 침범해 올 때에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됩니다. 이 죄에 묶여 버리면 내가 사로잡힐 뿐아니라 콘트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향하여 그리스도가 공격하고 멸하러 오셨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어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의 표적이 죄라고 하였으니 죄가 내 마음 속에 사로잡고 있으면 사망은 언제든지 그 죄를 따라 날라오기 때문에 나는 사망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고 했으니 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사망이 물러감으로 인해서 죄의 표적이 사라진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의 폭군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승리를 합니다.

****** 죄의 정체를 안 이상 죄의 포로가 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죄의 노예로 전락하면 그 비참함이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 앞에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팔뚝으로 죄를 물리치고 진리로 무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를 사망에서부터 건지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기도 우리의 인격이 죄에게 점령당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불드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6 : 11)
 그리스도 정신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정말 죽고 그리스도가 가졌던 가치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내가 갖지 못하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몸은 죽었으므로 다시는 죄에 종노릇할 수 없습니다(6 절). 성도는 죄에서 자유한 자입니다(7 절). 죄가 성도 위에 더 이상 주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8 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줄을 믿는다” 했습니다. 여기 신앙의 확실성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확실해야 합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갖는 사람은 영원한 소망에 맞추어 계획하고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와 함께 살 줄을’ 미래형입니다. 이 미래형은 보통 미래형이 아니라 확실한 미래입니다. 우리가 살줄을 안다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살 것인데 그 삶이란 것은 확실한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소망을 그 나라에 맞추고 부활에 맞춘 사람은 이와같이 미래 부활도 확실하게 갖게 됩니다. 결국 몸의 부활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육신도 부활할 것이니 그 부활한 영원한 삶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오늘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9 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도 반복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니 여러번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심을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 그리스도 정신입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므로 우리의 가치관을 변케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세상 중심의 가치관, 자아 중심의 가치관, 물질 중심의 가치관을 갖고 살았으나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중심, 예수님중심, 교회 중심의 가치관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날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합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6 : 13)

영적 능력 12절은 권면입니다. ‘몸’은 쓰러질 장막을 말합니다. 죄악이 거할 가능성이 많은 곳입니다. 죄가 나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면 죄와 싸우되 피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죄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신을 컨트롤하기 위해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 무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나 감정이나 지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능력이어야만 무기가 됩니다. 믿음과 사랑의 홍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옛사람에게 정복을 당해버리면 다시 죄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결국 영적능력을 상실해 버려서 자기의 의지와 감정과 지성에 끌려가고 맙니다.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병기’란 악기, 무기, 또는 그릇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의롭게 사용되는 무기, 그릇, 나팔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헌신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지 않은 사람이 의로운 병기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드리라’ 드리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지금 드리라 그 말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말이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서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었다고 자유방종하는 사람, 무율법자는 하나님 앞에서 허락이 안됩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율법의 완성자가 되어야지 자유분방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되 죽은자 가운데서 산 자같이 드리라고 했습니다. ‘산 자’는 새존재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치라. 새것이란 말은 질적변화를 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나아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 지금 이시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사용합시다. 돈은 돈다고 돈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지금 사용하십시오.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그것을 묻어두지 말고 활용하십시오. 지식은 시대가 바뀌어 사용못할 수도 있고 건강이 나빠져서 사용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십시오.

기도 죄를 이기기 위하여 싸우되 피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시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위하여 사용케 하소서.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6 : 5)

주·객관적 사역 회심과 회개를 혼돈하면 안됩니다. 회심은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상태를 말합니다. 회개는 회심한 다음에 지은 죄를 그리스도 앞에 들고 나가 털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심을 한 후에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개인 구원을 위한 사역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크게 두가지로 구원사역을 행하십니다. 하나는 객관적인 사역이요 또 하나는 주관적인 사역입니다. 객관적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재림 사건등입니다. 주관적 사역은 우리를 회개케 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 성화케 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주관적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그와같은 일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도덕적일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달라져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단번에 죽으심으로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까지도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의로운 종으로 바뀌어 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헌신해야 합니다. 이 헌신은 한 번 바친 다음에는 돌려받을 수 없는 헌신입니다. 한 번 헌신되었으면 신앙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지 내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6장 6절은 바울의 출발점입니다. 그 출발점은 십자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가 연합할 수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출발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변영신학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안보입니다.

**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자꾸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름다운 것 같고 대접을 받는 것 같고 박수를 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눈물을 흘려야 하는 길이고 가슴을 찢어야 하는 길이고 가시밭을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기도 우리의 헌신이 되물려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6 : 6)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죄때문입니다. 죄 있다고 생각되는 자마다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고 사는 진리가 없습니다. 교회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은 십자가를 안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개인도 십자가를 자꾸 외면하려고 할 때 걱정 근심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은 바울 선생이 보여준 대로 십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죽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의 모든 것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옛사람의 끝을 고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삶의 새출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출발도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시간도 초월하시는데 우리와 십자가와 연합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을 주후 29년으로 불러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주후 1989년에 살고 있지만 주후 29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 순간으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부활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했으니 그리스도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상태를 말해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죽는 것이나 아직도 동일한 죽음은 아닙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죄에서 우리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에서 살고 있으면 그는 부활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성도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확신을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도입과정으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안다는 말입니다.

※※ 옛사람이 정말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습니까. 아직도 욕심에 끌려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를 섬기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말 중생한 성도로서 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기도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죽는 체험을 통하여서 중생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6 : 14)

진정한 회개 ‘죄의 몸’은 죄를 많은 지체를 가진 기관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12절을 보면 죽은 몸을 말합니다. 죄와 성화 사상은 몸과 관계가 있는데 죄로 콘트롤 받는 몸,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을 죄의 몸이라 했습니다. 육신이 죄의 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육신은 죄의 몸이니까 다 썩을 것, 다 나쁜 것이라고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이니까 귀한 것입니다. 여기서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몸, 죄를 봉사하는 몸을 말합니다. 세상에 죄를 봉사하고 있는 몸이 많지만 믿는 자의 몸은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죽으면 그 죄를 더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의롭다하심이란 법정적 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행함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4 배로 갚게 됩니다(눅19장). 다른 사람을 괴롭힌 일이 있으면 이제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거침돌이 되었다면 이제는 다리를 놓아주는 일을 해야 되고 거짓말을 시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었다면 그것을 보상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정신을 갖지 않으면 공짜로 회개를 하니까 우습게 죄를짓고 우습게 회개하게 됩니다. 바울은 과거에 그리스도를 향하여 적대시하던 그 때를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일생을 바치는 열매가 일어났습니다.

** 한국에는 교회당은 많지만 교회는 없다고 하는 이유는 중생한 신자가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사람으로 태어나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욕을 향해서는 죽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죽고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죽고 정욕에서 죽고 세상을 향해서 죽어야 합니다.

기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만 하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정욕은 죽고 의의 새사람은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6 : 15)

하나님께만 순종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아래 사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은혜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의의 종이 된 성도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 율법에서 해방되어 새로워져서 은혜 아래서 계속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런 바울의 주장에 대해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소위 율법폐지론자들입니다. 율법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사람들입니다. 율법폐지론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이 신약에 와서 아무 필요가 없으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율법폐지론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왔다’ 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면 안됩니다. 또 하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성도에게 율법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 부도덕에 빠질 것입니다. 성도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와같은 두가지 주장 속에서 바울은 그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 폐지론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율법주의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를 하나님께서 따지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율법 폐지론과 바울 은혜의 신학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바울은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 반증합니다. 한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마 6 : 24). 의의 종이 된 하나님의 백성은 과거의 주인인 죄를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은 순종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 ＊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반강요해서 받아 타향으로 갔다가 다 망한 연후에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을 용서하신다면 집 뒤뜰의 복숭아 나무에 흰 깃발을 달아 달라고, 아버지는 복숭아 나무에 흰 깃발을 하나가 아니라 가지마다 수백개를 매달아 놓았습니다. 이것이 은혜 안에 산다는 의미입니다.

기도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붉은 피로 쓸개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인도하옵소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6 : 17)

이중 신학 본문은 성도의 실존을 직설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 두가지의 종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죄의 종이고 하나는 순종의 종입니다.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사람, 불신자가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의 댓가는 사망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의의 종이 가져오는 길은 거룩함에 이릅니다. 죄의 종이 갈 길과 의의 종이 갈 길이 각각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의입니다. 아브라함이 친척과 고향을 떠나라 했을 때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심을 입은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를 합니다. 성도들이 원래 죄의 종이더니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감사할 것은 죄의 종에서 의의 종, 순종의 종으로 바뀌어 진 것을 감사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한 감사는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영원히 해야 하고 계속해서 해야 할 감사는 죄의 종이었다가 의의 종, 순종의 종이 된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에는 바울의 이중신학이 나타납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서는 명령법으로 성도의 실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의의 종이 되었다'고 서술적으로 했는데 19절에 와서는 '거룩함에 이르라'고 명령합니다. 18절은 원리적인 면, 법정적인 면에서 본 것이고 19절은 실제적인 면에서 본 것입니다. 성도의 두가지 면이 나타났는데 루터는 이것을 가리켜 성도의 양면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법정적인 면에서는 의인이나 실제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의의 종이 되었으면 거룩함으로 들어가야지 거룩한 생활을 못하면 그 죄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에 이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 과거에는 우리의 지체가 부정과 불법에 드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법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에게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 불의의 종이었던 우리를 의의 종으로 삼으셨으니 더 이상 불의한 일에 우리 자신을 방임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6 : 19)

의의지체 우리는 부정과 불법에 드림으로 인해서 불법에 이르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드리게 합니다. 그 결과는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두가지 봉사가 대조적으로 나오는데 과거에는 죄의 종으로 의와는 관계없이 살았고 현재는 하나님의 종으로 의를 위해 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 자신이 의입니다. 자기 양심이 의라고 하는데 그 양심은 타락한 양심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법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죄짓는 것 너무 당연합니다. 그 사람들의 결과는 영적 사망이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성자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과 '고난' 이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이것을 피하려고 할 때에 결국 욕심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지 않는 일은 어떠한 일도 포기해야 합니다. 어떤 유익이 와도 그것을 대담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을 꺾는 일이라도 용감히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신자는 자기의 과거 생활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의와 상관이 없었던 때를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진실하고 더 겸손하게 과거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언급도 하기 싫을 만큼 싫어해야 하며 바울 사도처럼 분토와 같이 버려야 합니다. 20절은 모든 것의 해답을 죽음으로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 사람은 영생에 이르고 자기 혼자 죽는 사람은 영벌에 이릅니다.

******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의와는 관계 없이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 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는 관계 없이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영생이냐 영벌이냐 두가지 갈림길 밖에 없습니다.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기도 자기 중심으로 살아 죄의 종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가정예배 안내

예배 순서

- 1) 찬 송 ...다같이
- 2) 성경봉독 ...사회자
- 3) 메시지 낭독
- 4) 기 도 ...그날의 기도와 그달의 기도
- 5) 주 기 도 ...다같이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찬송과 성경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만나 • 1989년 8월호 • 등록번호/ 제9 - 110호 (1977. 10. 21) • 발행인/ 이종운
• 발행처/ 충현교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전화 562 - 4181 - 3)